

기술분석보고서 산업재

베노티앤알 (206400)

- ▶ 요약
- ▶ 기업현황
- ▶ 시장동향
- ▶ 기술분석
- ▶ 재무분석
-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서울평가정보(주)

작성자 박진희 책임

[▶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공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3449-145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베노티엔알(206400)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실내건축 기반 통합 건축 솔루션 기업

기업정보(2026.04.16 기준)

대표자	정집훈
설립일자	2001년 10월 30일
상장일자	2015년 12월 30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실내건축공사(외부 차양, 이중바닥재, 도배)
주요제품	차양, 이중바닥재, 도배)

시세정보(2026.04.16 기준)

현재가(원)	1,255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471
발행주식수	37,510,158주
52주 최고가(원)	2,775
52주 최저가(원)	991
외국인지분율	0%
주요주주	(주)라미쿠스 외 4인, (주)크리스에프앤씨 외 1인

■ 친환경·에너지 절감형 실내건축을 핵심으로 하는 B2B 수주형 기업

동사는 2015년 코스닥에 상장되었고, 실내건축을 중심으로 차양시스템, 이중바닥재, 복사냉난방시스템의 설계·시공을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친환경 및 에너지 절감 중심의 솔루션 제공을 특징으로 한다. 대형 건설사 및 발주처를 대상으로 한 B2B(Business-to-Business) 수주형 구조이며, 입찰 기반 프로젝트 확보와 기술 제안형 영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매출은 실내건축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로봇 및 바이오 사업을 통해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 설계·자재·시공이 결합된 통합 에너지 솔루션 중심의 가치사슬

친환경·에너지 절감형 실내건축 시장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녹색건축 인증,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확산 등의 영향으로 성장하는 규제·정책 의존적 산업으로, 건설사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B2B 프로젝트 수주형 구조와 설계·자재·시공이 결합된 통합 솔루션 중심의 가치사슬이 특징이다. 초기 비용보다 생애주기 비용을 중시하는 수요 특성을 보이며, 최근에는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 친환경 소재 적용, 스마트빌딩 기술 도입, 그린 리모델링 시장 성장 등의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경쟁 구조 역시 개별 제품 중심에서 건물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통합 설계·시공 역량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 설비사업 확장과 신사업 추진을 통해 실적 회복과 구조 전환 모색 중

동사는 덕트 제조사업 인수를 통해 실내건축에서 공조·환기설비까지 사업을 확대하며 통합 건축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이후 수주 변동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나타났으나, 2026년에는 기존 사업 회복과 신규 사업 효과로 실적이 반등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로봇 등 신사업을 통해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 중이나, 단기 기여는 제한적이며 향후 수주 확대와 친환경 건축 수요에 따라 실적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3	99.2	-54.5	-70.1	-70.7	-79.2	-79.9	-10.5	-7.1	53.3	-266	2,655	N/A	1.3
2024	253.0	155.1	-97.0	-38.4	-35.9	-14.2	-3.9	-3.2	10.0	-106	2,538	N/A	1.1
2025	47.7	-81.1	-53.6	-112.3	-240.3	-503.2	-28.5	-26.2	9.9	-635	1,920	N/A	0.9

기업경쟁력

통합 건축 솔루션 수행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양시스템, 이중바닥재, 복사냉난방에 더해 최근 공조·환기설비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설계-자재-시공-설비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역량 보유
친환경·에너지 절감 중심 사업 포지셔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영역이 에너지 효율과 직결되는 분야로, ESG 및 탄소중립 정책 확대에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한 구조
기존 사업 기반 + 신사업 확장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내건축사업을 통해 현금흐름을 확보하면서 로봇 등 신사업으로 확장하는 이중 구조를 보유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루버 기반 차양시스템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루버 각도 조절, 개폐·슬라이딩 구조, 내풍압·내진 설계 등 기계적 구조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일사량을 제어하고 냉난방 에너지 절감 	
복사냉난방 패널 시스템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장 내 구리관을 통한 냉·온수 순환으로 복사열 기반 온도 조절을 수행하는 기술 	
친환경 이중바닥재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활용 기반 소재와 고강도 구조를 적용하여 하중 분산과 설비 공간 확보를 동시에 구현하는 기술 	

시장경쟁력

대형 건설사 중심 B2B 수주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 프로젝트 참여 경험과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시장 진입장벽 형성
프로젝트 기반 맞춤형 기술제안 경쟁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순 시공이 아닌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여 고객 요구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영업 구조
친환경 건축 트렌드와의 높은 정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로에너지 건축, ESG, 그린리모델링 확대 등 시장 흐름과 제품군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구조적 수요 증가에 대응 가능한 시장 적합성 보유

VRIO 분석 (VRIO Analysis)

VRIO(브리오) 분석이란 기업이 보유한 경영자원과 활용 능력을 가치(Value), 희소성(Rarity), 모방 가능성(Imitability), 조직(Organization)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하는 도구

			
가치(Value)	희소성(Rarity)	모방가능성(Imitability)	조직(Organ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에너지 절감형 실내건축 및 설비 솔루션을 통해 ESG 및 정책 기반 수요에 대응하는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양·복사냉난방·공조설비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중소형 실내건축 기업은 제한적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체 설계 기술과 시공 레퍼런스 축적이 필요하여 단기간 내 모방이 쉽지 않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내건축 기반 수주 경험과 사업 확장 구조를 통해 통합 솔루션 제공이 가능한 조직 역량을 갖추고 있다.

I. 기업 현황

친환경·에너지 절감형 실내건축을 핵심으로 하는 B2B 수주형 기업

동사는 2015년 코스닥에 상장되었고, 실내건축을 중심으로 차양시스템, 이중바닥재, 복사냉난방시스템의 설계·시공을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친환경 및 에너지 절감 중심의 솔루션 제공을 특징으로 한다. 대형 건설사 및 발주처를 대상으로 한 B2B 수주형 구조이며, 입찰 기반 프로젝트 확보와 기술 제안형 영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매출은 실내건축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로봇 및 바이오 사업을 통해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 기업 개요

동사는 2001년 10월 30일 설립된 이후 게임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2015년 12월 한국제2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와 합병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2021년 7월 (주)씨엠코의 흡수합병을 통해 스마트 건물용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 및 시공, 복사냉난방시스템 구축 관련 핵심기술을 내재화하고 관련 사업에 진출하였다. 동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3년 6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사명을 베노홀딩스에서 베노티앤알(BENO TNR, Inc.)로 변경하였다.

동사의 주된 사업은 실내건축업으로, 차양시스템, 친환경 이중바닥재, 복사냉난방시스템의 개발, 설계 및 시공을 수행하고 있다. 실내건축사업은 단순 시공에 그치지 않고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과 공간 활용성을 고려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며, 특히 차양시스템을 통해 냉방에너지 절감 효과를 구현하는 등 친환경 건축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설계 단계부터 시공까지 전 공정을 수행하는 역량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웨어러블 로봇 사업과 바이오 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 다각화 및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영역이다. 다만 현재 수익 구조는 실내건축사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신사업 부문은 초기 투자 및 사업 기반 구축 단계에 있다. 최근에는 외부 기업 지분 투자 및 합작법인 설립 등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 특히 웨어러블 로봇 분야에서는 해외 기업 지분 취득과 아시아 지역 사업 전개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표 1] 동사의 주요 연혁

일시	내용
2001.10	회사 설립(상호 : 주식회사 엔터메이트)
2015.12	한국제2호기업인수목적(주)와 합병, 코스닥시장 합병신주 상장
2020.08	주식회사 베노바이오 계열사 편입
2020.09	상호 변경(주식회사 엔터메이트 ⇒ 주식회사 베노홀딩스)
2021.07	(주)씨엠코 합병
2022.05	게임사업 영업 중단
2023.05	캐나다 로봇기업 Human in Motion Robotics Inc. 지분 인수(지분비율 45.10%)
2023.06	상호 변경(주식회사 베노홀딩스 ⇒ 주식회사 베노티앤알)
2023.09	휴먼인모션로보틱스아시아 설립(베노티앤알 60%, 휴먼인모션로보틱스 40%)
2025.01	(주)알티캐스트 유상증자 참여 및 지분 인수 완료(지분비율 2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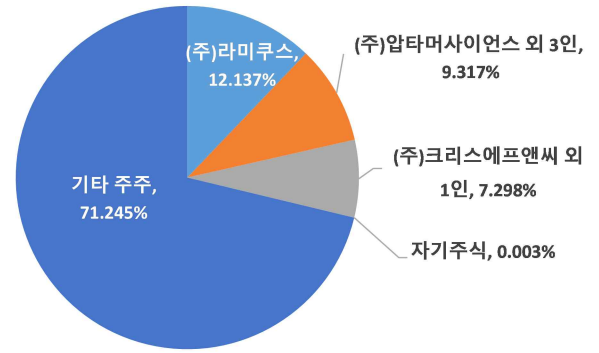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동사 IR자료(2023), 동사 홈페이지, 서울평가정보(주) 재무성

■ 주주 현황

2026년 3월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주)라미쿠스로, 전체 발행주식(37,510,158주) 중 4,552,496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지분의 12.137%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특수관계인인 (주)압타머사이언스 외 3인이 3,494,694주(9.317%)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주)크리스에프앤씨 외 1인이 단순 투자 목적으로 2,737,327주(7.298%)의 동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1,022주의 자기주식 보유 내역이 확인되고, 나머지 26,724,619주(71.245%)는 소액주주 등 일반 주주가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의 지분을 합계는 약 21.454%로 파악된다.

[표 2] 동사의 주요 주주 현황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관계
(주)라미쿠스	4,552,496	12.137%	최대주주
(주)압타머사이언스 외 3인	3,494,694	9.317%	특수관계인
(주)크리스에프앤씨 외 1인	2,737,327	7.298%	
자기주식	1,022	0.003%	
기타 주주	26,724,619	71.245%	
합계	37,510,158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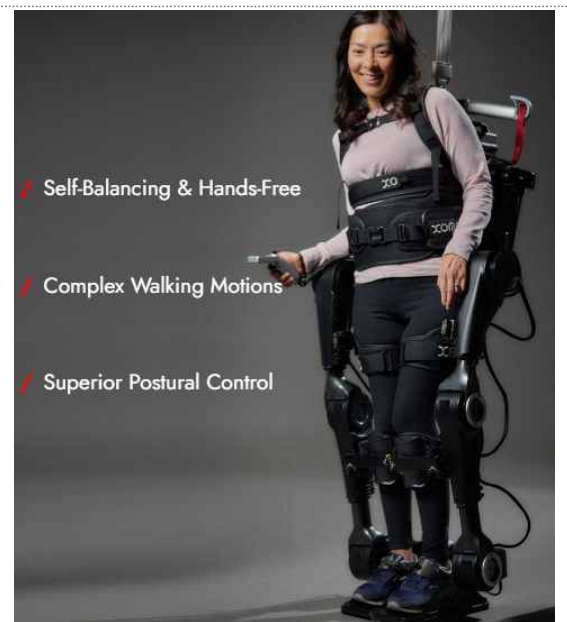
자료: 동사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2026.03),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사업 영역

동사의 사업영역은 실내건축사업, 로봇사업, 바이오사업으로 구분된다. 실내건축사업은 동사의 핵심 사업으로, 차양시스템, 복사냉난방시스템, 친환경 이중바닥재 등을 포함한 건축 내부 공간 설계 및 시공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동사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공정을 수행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친환경 건축 및 제로에너지 건축 트렌드에 대응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로봇사업은 웨어러블 로봇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관계기업 Human in Motion Robotics의 기술을 기반으로 재활 및 헬스케어용 외골격 로봇을 개발 및 사업화하고 있다. 동사는 해당 기업 지분을 취득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생산시설 구축과 인허가를 통해 판매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바이오사업은 후생유전학 기반 치료제 개발 등 연구개발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실질적인 매출 기여보다는 중장기 사업 포트폴리오 측면의 성격이 강하다.

[그림 1] 동사의 웨어러블 로봇 XoMotion



자료: Human in Motion Robotics 홈페이지,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베노티엔알(206400)

매출 측면에서는 실내건축사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5년 사업보고서 기준 매출은 총 47.7억 원이며, 이 중 건설매출이 80.8%를 차지하고 기타매출이 19.2%를 차지한다. 건설매출 내에서는 도배가 51.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부차양 23.5%, 이중바닥재 6.1% 순으로 나타난다.

반면 2024년 기준 매출에서는 이중바닥재가 5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외부차양 29.1%, 도배 18.6% 순으로 구성되어 제품별 매출 비중이 연도별로 크게 변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동사의 매출이 프로젝트 단위 수주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사의 매출 구조는 특정 제품군 중심의 안정적 반복 매출 구조라기보다는, 수주 프로젝트 구성에 따라 제품 믹스가 변화하는 건설형 매출 구조로 평가된다.

[표 3] 동사의 주요 제품 매출실적

(단위 : 억 원, %)

구분	2023년	비중	2024년	비중	2025년	비중
복사패널	5.8	5.8%	-	0.0%	-	0.0%
외부차양	27.7	27.9%	73.6	29.1%	11.2	23.5%
이중바닥재	9.8	9.9%	127.0	50.2%	2.9	6.1%
도배	27.6	27.8%	47.0	18.6%	24.4	51.2%
기타	28.3	28.6%	5.4	2.1%	9.2	19.2%
합계	99.2	100.0%	253.0	100.0%	47.7	100.0%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판매조직 및 판매전략

동사의 판매조직은 일반 소비재 기업과 달리 대형 건설사 및 발주처를 대상으로 하는 B2B 수주형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현대건설, GS건설, 태영건설 등 주요 건설사를 대상으로 입찰을 통해 실내건축공사를 수주하고 있으며, 주요 매출 역시 이러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발생한다. 따라서 동사의 판매조직은 단순 영업 조직이라기보다 설계·기술 제안과 연계된 기술영업 중심의 구조로 이해된다. 동사는 고객 요구에 맞춰 설계부터 시공까지 수행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판매전략 측면에서 동사는 대형 건설사 중심의 수주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프로젝트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고객 요구 기반의 맞춤형 설계 및 시공을 통해 단순 가격 경쟁이 아닌 기술·품질 중심의 경쟁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및 제로에너지 건축 트렌드에 대응하는 제품과 솔루션을 통해 시장 내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동사의 판매조직 및 전략은 프로젝트 수주형 B2B 구조를 기반으로 하며, 기술 기반 맞춤형 솔루션 제공과 친환경 건축 트렌드 대응을 핵심 경쟁요소로 하고 있다.

한편, 로봇사업의 경우 기존 실내건축사업과는 다른 판매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현재는 생산거점 구축, 인허가 확보, 해외 영업 네트워크 구축 등을 중심으로 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향후에는 재활센터 및 헬스케어 시장을 중심으로 판매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II. 시장 동향

설계·자재·시공이 결합된 통합 에너지 솔루션 중심의 가치사슬

친환경·에너지 절감형 실내건축 시장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녹색건축 인증, ESG 확산 등의 영향으로 성장하는 규제·정책 의존적 산업으로, 건설사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B2B 프로젝트 수주형 구조와 설계·자재·시공이 결합된 통합 솔루션 중심의 가치사슬이 특징이다. 초기 비용보다 생애주기 비용을 중시하는 수요 특성을 보이며, 최근에는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 친환경 소재 적용, 스마트빌딩 기술 도입, 그린 리모델링 시장 성장 등의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경쟁 구조 역시 개별 제품 중심에서 건물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통합 설계·시공 역량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 친환경 및 에너지 절감형 실내건축 시장의 특성

친환경 및 에너지 절감형 실내건축 시장은 일반 인테리어 시장과 달리 정부 정책 및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 구조를 가진다. 탄소중립 정책,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 등은 건축물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이에 따라 실내건축 분야에서도 친환경성과 에너지 절감 성능이 중요한 요구사항으로 자리잡고 있다. ESG 경영 확산 역시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하며 기업과 공공기관의 건축 및 공간 설계 기준을 변화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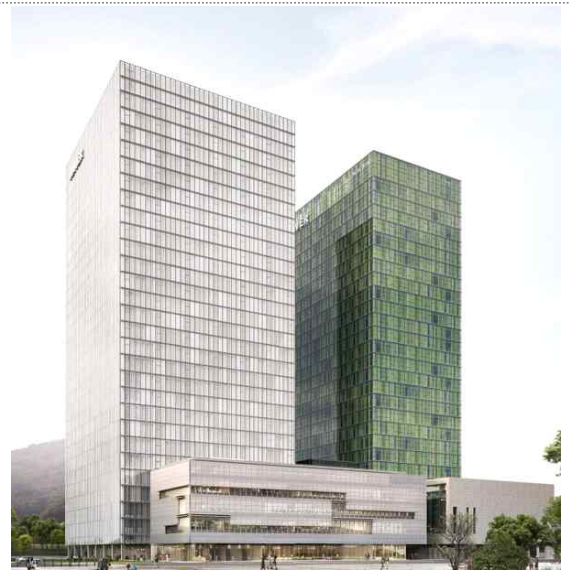
해당 시장은 건설사, 시행사, 대기업 등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B2B 중심의 프로젝트 수주형 구조를 가진다. 실내건축 수요는 건축물 신축이나 리모델링 시점에 발생하며, 프로젝트 단위로 수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출은 비정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특징을 보인다. 이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은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 기술 제안 능력, 시공 경험, 레퍼런스 확보 등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친환경 실내건축은 설계, 자재, 설비, 시공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통합형 가치사슬을 형성한다.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건축 초기 설계 단계부터 차양, 공조, 바닥 시스템 등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기업은 단일 제품이 아닌 종합적인 솔루션 제공 능력을 요구받는다. 이러한 특성은 실내건축 기업을 단순 시공업체에서 기술 기반 솔루션 기업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경제성 측면에서는 초기 투자비보다 장기적인 운영 효율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친환경 자재 및 설비는 일반 제품 대비 초기 비용이 높은 경우가 많으나, 에너지 절감에 따른 운영비 절감 효과를 통해 생애주기 비용 관점에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요자는 단기 비용보다는 장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특징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해당 시장은 기술 및 인증 기반의 진입장벽을 가진다. 녹색건축인증, 에너지 효율 인증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 에너지 절감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기술력과 시공 실적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축적된 기술과 레퍼런스를 보유한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용이한 구조를 가진다.

[그림 2] 동사의 차양시스템, 친환경 이중바닥재, 복사냉난방 패널을 적용한 네이버(주)의 사옥



자료: 건축사신문,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핵심 트렌드 및 시사점

최근 실내건축 시장은 ESG 및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업과 투자자는 환경 영향을 고려한 지속가능성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으며, 이에 따라 친환경 건축 및 에너지 절감형 공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구조적인 시장 변화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국내 실내건축공사 시장은 2023년 15조 3,696억 원 규모에서 연평균 4.27%의 비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로에너지 건축 개념의 확산 역시 핵심적인 변화 요소로 작용한다.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최소화 하거나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제로에너지 건축이 확대되면서, 실내건축 분야에서도 차양시스템, 고효율 공조 시스템, 복사냉난방 시스템 등 에너지 절감 기술의 적용이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2015년 5월에 시행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연면적 3,000㎡ 이상인 공공 건축물 가운데 교육연구시설 및 업무시설의 건축/리모델링 시, 루버나 블라인드와 같은 차양, 단열재 등의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실내건축을 단순 공간 구성에서 에너지 관리 요소를 포함한 영역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친환경 소재와 순환경제 개념의 적용 또한 확대되고 있다. 재활용 자재, 저탄소 소재, 친환경 인증 제품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건축물 전반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연결된다. 특히 건축 자재 선택 단계에서 환경 영향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관련 산업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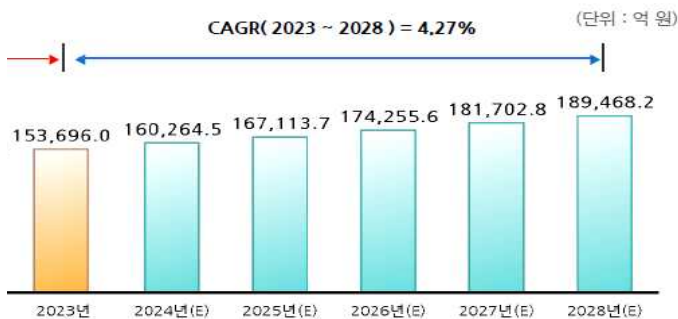
디지털 기술과 결합된 스마트빌딩 트렌드도 중요한 변화 방향이다. IoT(Internet of Things)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 자동 제어형 차양 및 공조 시스템 등은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실내건축은 단순 시공을 넘어 건물 운영 효율과 연결되는 통합 시스템의 일부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과 관련하여 국내 냉난방·공기조화설비 공사 시장은 2023년 5조 1,090억 원 규모에서 연평균 15.89%의 비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신축 중심 시장에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리모델링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지원과 함께 그린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실내건축 기업에게 지속적인 수요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경쟁 구조는 개별 제품 중심에서 통합 솔루션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과거에는 차양, 바닥재 등 개별 제품의 성능이 경쟁 요소였다면, 현재는 건물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설계 및 시공 능력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설계, 시공, 유지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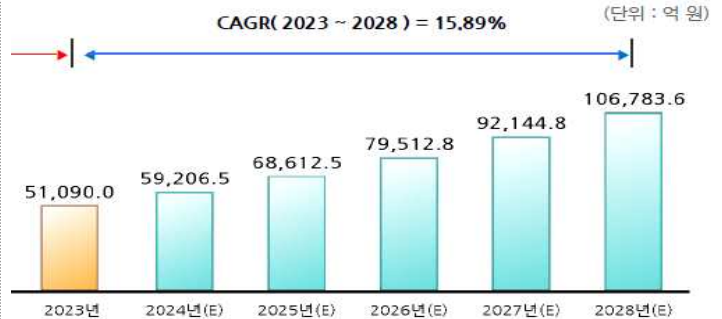
[그림 3] 국내 실내건축공사 시장

(단위 : 억 원)



[그림 4] 국내 냉난방·공기조화설비 공사 시장

(단위 : 억 원)



자료: TDB 시장정보,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III. 기술분석

차양·복사냉난방·이중바닥재 구조체 설계 기술 기반 에너지 절감형 실내건축 솔루션 보유

동사는 차양시스템, 복사냉난방시스템, 친환경 이중바닥재를 중심으로 한 구조체 설계 및 시공 기술을 핵심 역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루버의 각도 조절, 개폐 및 슬라이딩 구조, 내풍압 및 내진 설계 등을 포함한 차양시스템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복사냉난방시스템에서는 구리관 기반 복사열 전달 구조와 열효율 및 구조 안정성을 고려한 패널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바닥재를 통해 공조 효율과 공간 활용성을 동시에 개선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루버 구조체, 복사패널 설계, 블라인드 디자인 등 다양한 특허 및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다.

■ 핵심 보유기술 및 특징점

동사는 실내건축 분야에서 차양시스템, 복사냉난방시스템, 친환경 이중바닥재를 중심으로 한 구조체 설계 및 시공 기술을 핵심 역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절감과 건축물 외관 디자인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차양시스템 기술이 주요 경쟁력으로 작용한다.

차양시스템은 태양 복사열을 건물 외부에서 차단하여 실내 열부하를 감소시키는 기술로, 루버(Louver)의 각도 조절(틸팅 기능) 및 개폐 방식에 따라 일사량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 동사는 버티컬 루버 구조체, 자동 개폐형 블라인드, 전동식 슬랫 블라인드 등 다양한 형태의 차양 구조를 설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냉방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건물 외피의 열환경을 개선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그림 5] 동사의 차양시스템(전동 루버, 천장 FTS(Fabric Tension System), 키네틱 파사드)



자료: 동사 IR자료(2023.10),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특허자료에 따르면 동사는 상·하향 접이식 루버, 슬라이딩 개폐형 루버, 고정 및 가변형 루버 구조체 등 다양한 기구 설계를 포함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루버의 힌지 구조, 고정 브라켓, 락킹 메커니즘, 레일 기반 이동 구조 등 기계적 요소 설계를 통해 내풍압 및 내진 성능을 확보하고 있으며, 구조 안정성과 유지보수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루버의 각도 조절 및 개폐 방식이 자동 제어 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스마트빌딩 환경에도 적용 가능하다.

복사냉난방시스템은 천장 패널 내부에 설치된 구리관을 통해 냉·온수를 순환시키고, 복사열 전달(약 50%)과 자연 대류를 결합하여 실내 온도를 조절하는 기술이다. 이는 기존 공기 대류 방식 대비 소음, 먼지 발생이 적고 균일한 온도 분포를 형성할 수 있으며,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냉난방 시스템이다. 동사는 복사패널 구조체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패널 내 배관 구조, 열전달 효율, 구조 안정성 등을 고려한 설계가 가능하다. 특히 내진 성능을 확보한 복사패널 구조를 개발하여 외부 충격 및 지진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그림 6] 동사의 복사냉난방시스템

냉방(Cooling Mode)

• 실내의 모든 열원을 Chilled ceiling의 복사와 대류를 이용하여 분배하고 실내온도를 조절



난방(Heating Mode)

• 패널에 설치된 구리관을 통해 약 30도의 따뜻한 물을 흘려 보내면 복사(Radiation)에 의해 방안의 물체와 바닥면이 따뜻함을 흡수하는 방식



자료: 동사 IR자료(2023.10),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친환경 이중바닥재 기술은 건물 내부 설비(전선, 공조 등)를 바닥 하부 공간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베연탈황 석고 기반의 고강도 패널을 사용하여 하중 분산 및 내구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중바닥 시스템은 공조 효율을 향상시키고 공간 활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유지보수 편의성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종합적으로 동사는 차양시스템, 복사냉난방, 이중바닥재를 통합하여 설계·시공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물 단위의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시공업체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진다.

■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동사는 실내건축 핵심 기술에 대해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차양시스템과 루버 구조체 분야에 집중된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사는 루버의 개폐 구조, 접이식 메커니즘, 슬라이딩 이동 구조, 고정 브라켓 구조, 힌지 결합 방식 등 다양한 기구 설계 기술에 대해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루버의 상·하향 접이 구조 및 슬라이딩 방식은 공간 활용성과 시공 편의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기술로, 다양한 건축 환경에 적용 가능하다. 또한 루버 구조체의 내진 설계 및 내풍압 구조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외부 환경 변화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구조 설계 기술은 단순 차양 제품이 아닌 건축 구조체 일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복사냉난방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복사패널 구조체 설계 및 시공 방법에 대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실제로 SGS시험기관을 통해 내진 테스트 인증을 획득하여 구조 안정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는 건축물 적용 시 요구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외에도 블라인드 판재 디자인 등록 등 디자인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 제품 외관 및 기능을 동시에 보호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동사는 차양시스템 및 복사냉난방 시스템을 중심으로 구조체 설계, 구동 메커니즘, 시공 기술에 대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 보호와 시장 진입장벽 확보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PEST 분석

건설 및 실내건축 산업은 정부의 정책과 규제 영향을 크게 받는 분야로, 동사 역시 탄소중립 정책,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에너지 절감 의무화 등 친환경 건축 관련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특히 제로에너지건축 확대,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 ESG 관련 규제 강화는 동사의 차양시스템 및 복사냉난방 등 에너지 절감 기술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건설경기 부양 정책 축소나 공공 발주 감소, 건설 규제 강화 등은 프로젝트 수주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실적 변동 가능성도 존재한다.

동사가 속한 실내건축 시장은 건설경기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금리 수준, 부동산 경기, 기업 투자 사이클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금리 상승 및 부동산 경기 둔화는 신규 건축 및 리모델링 수요 감소로 이어져 동사의 수주 기회 축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동사는 프로젝트 기반 수주 구조를 가지므로 경기 변동에 따른 매출 변동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 반면 기업의 ESG 투자 확대 및 친환경 건축 수요 증가는 경기 변동과 별개로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어, 친환경 기술 중심 포트폴리오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성을 보완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사회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절감,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축 및 공간 설계에서도 이러한 요소가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기업 및 공공기관은 ESG 경영 실현을 위해 친환경 건축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동사의 핵심 사업인 차양시스템 및 친환경 건축 솔루션 수요 확대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재활 및 헬스케어 분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동사가 추진 중인 웨어러블 로봇 사업의 성장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술 측면에서는 친환경 건축 기술, 에너지 절감 설비, 스마트빌딩 기술의 발전이 동사의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차양시스템의 자동 제어 기술, 복사냉난방의 열효율 개선, 이중바닥재 기반 공조 시스템 등은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하는 핵심 기술로 발전하고 있으며, IoT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과 결합되면서 고도화되고 있다. 또한 웨어러블 로봇 분야에서는 센서, 구동장치, 제어 알고리즘 등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기술 확보 여부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동사는 기존 건축 기술 고도화와 신사업 기술 확보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기술 변화 환경에 놓여 있다.

[그림 7] PEST 분석

➢ Political (정치)

- 친환경·제로에너지건축 정책 확대
- ESG 및 에너지 규제 강화
- 건설 정책 변화에 따른 수주 영향



➢ Economic (경제)

- 건설경기 및 부동산 경기 의존
- 금리 및 투자 사이클 영향
- 프로젝트 기반 매출 변동성 존재

➢ Social (사회)

- 친환경·지속가능성수요 증가
- ESG 경영 확산
- 고령화에 따른 재활 및 헬스케어 수요 확대

➢ Technological (기술)

- 에너지 절감 건축 기술 발전
- 스마트빌딩·자동제어 기술 확산
- 웨어러블 로봇 기술 고도화

자료: 서울평가정보(주)

IV. 재무분석

실내건축 중심 매출 기반과 자본완충력 유지

동사의 매출액은 실내건축사업을 중심으로 매출이 크게 변동하는 구조를 보였으며, 2023년 99.2억 원에서 2024년 253.0억 원으로 외형 확대 이후 2025년에는 47.7억 원으로 급감하였다. 제품별로는 2024년 이중바닥재가 성장을 주도했고, 2025년에는 도배 비중이 높아지며 매출 구성이 재편되었다. 수익성은 3개년 연속 영업적자가 이어졌고, 2025년에는 금융원가 급증과 외형 축소가 겹치며 순손실을 기록하였다. 재무구조는 부채총계가 감소하고 자본총계가 부채를 상회하여 자본완충력은 유지되고 있다.

■ 실내건축공사 중심 외형 재편

동사의 3년간 매출액은 2023년 99.2억 원, 2024년 253.0억 원, 2025년 47.7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2025년에는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2024년에는 건설공사수익 확대가 외형을 견인한 반면, 2025년은 건설공사 축소가 나타나 매출 감소가 나타났다.

연도별 주요 제품 매출액을 살펴보면, 2023년에는 실내건축사업 매출이 외부차양 27.7억 원, 도배 27.6억 원, 이중바닥재 9.8억 원, 복사패널 5.8억 원, 기타매출 28.3억 원으로 구성되었다. 2024년에는 외부차양 73.6억 원, 이중바닥재 127.0억 원, 도배 47.0억 원, 기타매출 5.4억 원으로 이중바닥재 비중이 50.2%까지 높아지며 외형 성장을 주도했다. 반면 2025년에는 외부차양 11.2억 원, 도배 24.4억 원, 이중바닥재 2.9억 원, 기타매출 9.2억 원으로 축소되었고, 도배 비중이 51.2%로 가장 높아졌다. 2024년 이중바닥재 중심 매출이 일시적으로 확대된 이후 2025년에는 비교적 소규모 공사 중심으로 매출 구성이 재편되었다.

동사의 매출은 최근 3개년 동안 실내건축공사 수익의 수주 시점과 공정 진행 정도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구조를 보였다. 2024년 기준 수주총액 970.2억 원 중 수주잔고가 14.0억 원 남아 있었고, 2025년 말에도 수주잔고 8.1억 원이 남아있다. 향후 매출은 수주잔고의 매출 전환과 신사업의 상용화 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 판관비 및 영업외비용 변동성 완화가 수익성 개선의 핵심

동사의 영업손실은 2023년 70.1억 원, 2024년 97.0억 원, 2025년 53.6억 원으로 3개년 연속 적자가 이어졌다. 2025년의 경우 비용구조 개선으로 영업적자 폭이 축소되었다. 매출원가율은 2023년 67.4%, 2024년 85.3%, 2025년 71.9%로 높은 수준이 지속되었으나, 2025년에는 전년 대비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판매비와관리비 역시 2023년 102.5억 원, 2024년 134.2억 원, 2025년 67.0억 원으로 변동하였다. 2024년에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38.9억 원 계상으로 인해 판관비 부담이 확대되어 수익성 저하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2025년에는 대손상각비 환입 및 복구충당부채 환입 영향으로 판관비 총액이 줄어들어 영업적자 폭 축소에 영향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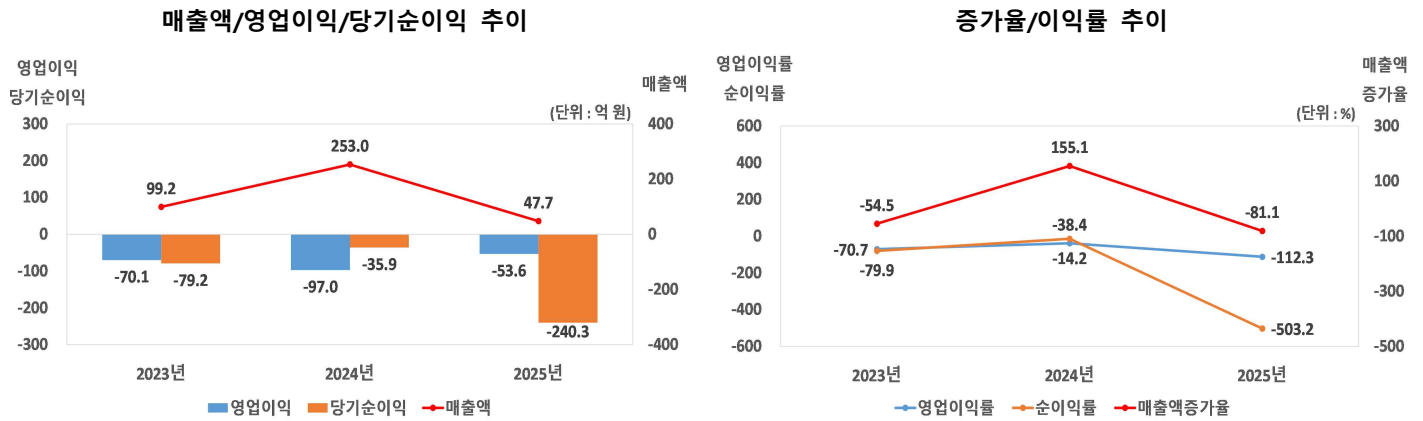
당기순손실 규모는 2023년 79.2억 원, 2024년 35.9억 원, 2025년 240.3억 원을 기록하였다. 2024년 순손실 규모 축소는 영업손실 지속에도 불구하고 금융수익 152.2억 원, 기타수익 134.3억 원이 영업외비용을 상쇄한 영향이 컸다. 반면 2025년에는 금융원가가 169.4억 원으로 급증하였고, 기타수익도 16.1억 원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전반적으로 금융자산 평가손익, 관계기업 투자 관련 손익 변동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베노티엔알(206400)

동사는 2025년 매출원가와 판매비 총액이 함께 축소되어 비용 부담이 완화되었다. 실내건축 수주 정상화, 금융 및 기타원가 변동성 완화가 병행된다면 수익성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존재한다.

[그림 8] 동사 연간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부채 규모 축소되며 자본 완충력 유지

동사의 자산총계는 2023년 1,229.6억 원, 2024년 1,047.5억 원, 2025년 789.4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현금및현금성자산은 163.4억 원, 163.9억 원, 56.5억 원으로 2025년에 크게 줄었고, 매출채권도 36.5억 원에서 14.5억 원, 1.1억 원으로 축소되었다. 매출 감소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유동비율은 2023년 138.9%, 2024년 723.3%, 2025년 603.8%로 안정적인 수준을 나타냈다.

부채총계는 2023년 427.7억 원, 2024년 94.8억 원, 2025년 70.9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전환사채 상환과 전환권 행사로 부채축소와 자본확충 효과가 나타났으며, 전환사채 장부금액은 2023년 302.4억 원에서 2024년 30.2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계약부채의 경우, 2023년 25.4억 원에서 매출 인식에 따라 2024년 5.8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장기차입금은 2025년 기준 4.2억 원 수준으로 차입금 부담 역시 크지 않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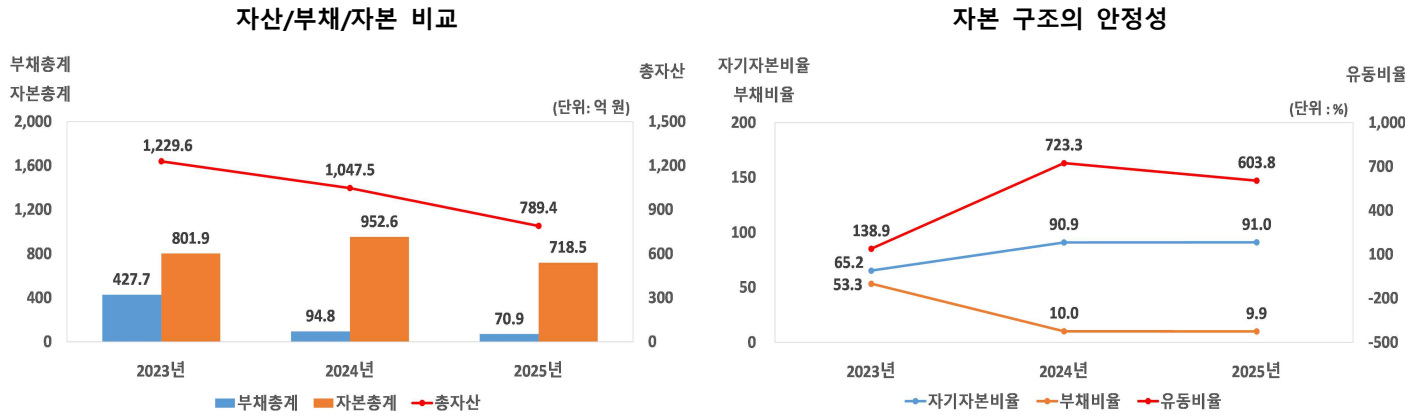
자본총계는 2023년 801.9억 원, 2024년 952.6억 원으로 확대되었다가 2025년 718.5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2024년에는 전환권 행사와 자본잉여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등이 자본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2025년에는 당기순손실로 이익잉여금이 결손금으로 전환되어 자본총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자본 규모는 여전히 부채총계를 상회하여 자본 완충력은 유지되었다.

동사는 2025년 실적 부진과 현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부채 축소와 자본 규모를 유지하였다. 실내건축 수주 회복, 영업현금흐름 개선을 통한 결손금 축소가 핵심일 것으로 예상된다.

베노티엔알(206400)

[그림 9] 동사 연간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표 4] 동사 연간 요약 재무제표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3년	2024년	2025년
매출액	99.2	253.0	47.7
매출액증가율(%)	-54.5	155.1	-81.1
영업이익	-70.1	-97.0	-53.6
영업이익률(%)	-70.7	-38.4	-112.3
순이익	-79.2	-35.9	-240.3
순이익률(%)	-79.9	-14.2	-503.2
부채총계	427.7	94.8	70.9
자본총계	801.9	952.6	718.5
총자산	1,229.6	1,047.5	789.4
유동비율(%)	138.9	723.3	603.8
부채비율(%)	53.3	10.0	9.9
자기자본비율(%)	65.2	90.9	91.0
영업현금흐름	-36.0	-36.5	-16.5
투자현금흐름	-206.0	154.7	-43.0
재무현금흐름	127.1	-117.1	-47.8
기말현금	163.4	163.9	56.5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동사 실적 전망

동사의 매출은 실내건축사업 중심의 프로젝트 수주 구조에 따라 연도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2024년에는 이중바닥재(127.0억원)와 외부차양(73.6억원)을 중심으로 대형 프로젝트가 반영되면서 매출이 253.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5년에는 주요 프로젝트 종료 및 신규 수주 감소 영향으로 47.7억원 수준까지 급감하였다. 이는 동사의 실적이 특정 제품 경쟁력보다는 프로젝트 수주 시점과 규모에 크게 좌우되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제품별로 보면, 이중바닥재와 외부차양은 대형 프로젝트 수주 시 실적을 견인하는 핵심 품목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수주 여부에 따라 매출 변동 폭이 매우 큰 특징을 보인다. 반면 도배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며, 2023년 27.6억 원, 2024년 47.0억 원, 2025년 24.4억 원으로 변동은 있으나 지속적인 매출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복사패널은 최근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현재 주력 매출원에서는 제외된 상태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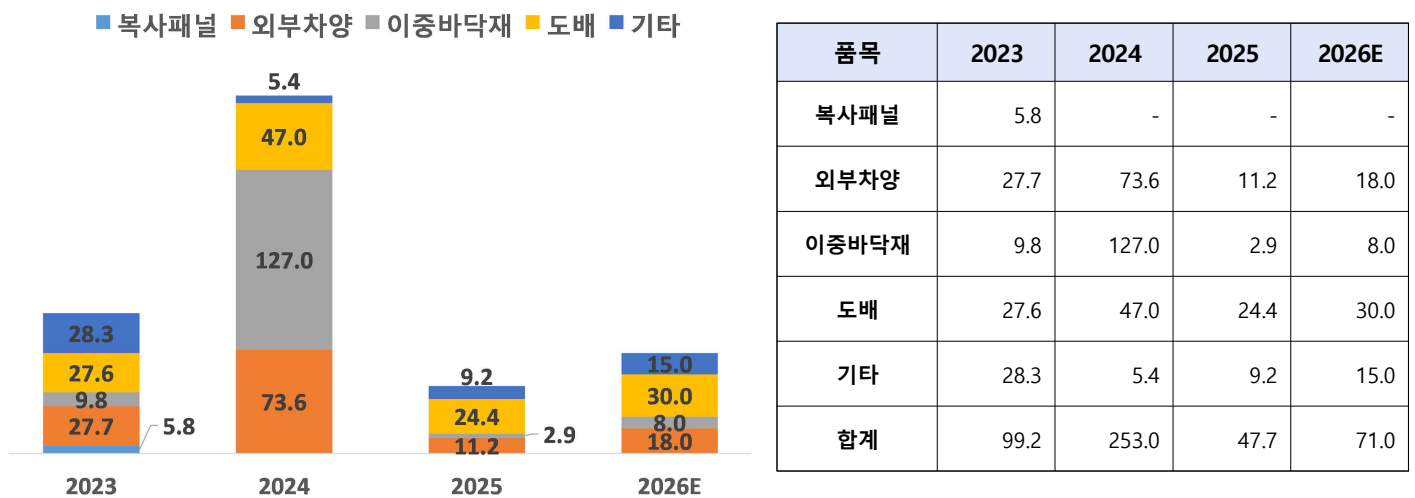
2026년 예상 매출은 71.0억 원으로, 2025년 대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외부차양(18.0억 원)과 도배(30.0억 원)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수주 회복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도배의 비중이 확대되며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유지하는 가운데, 외부차양과 이중바닥재의 일부 회복이 실적 반등을 견인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2024년과 같은 대규모 매출 재현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제한적이며, 이는 동사의 사업이 반복형 매출 구조가 아닌 프로젝트 기반 구조이기 때문이다. 향후 실적 개선 여부는 대형 건설사 및 주요 발주처로부터의 신규 프로젝트 수주 여부에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에너지 절감형 건축 수요 확대에 따라 차양시스템 및 관련 제품군의 수요가 증가할 여지가 있으며, 이는 외부차양 중심의 매출 회복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실적의 안정적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형 프로젝트 의존도를 완화하고, 반복 수익 구조 또는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변동성 완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0] 동사 연간 실적 전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설비사업 확장과 신사업 추진을 통해 실적 회복과 구조 전환 모색 중

동사는 덕트 제조사업 인수를 통해 실내건축에서 공조·환기설비까지 사업을 확대하며 통합 건축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이후 수주 변동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나타났으나, 2026년에는 기존 사업 회복과 신규 사업 효과로 실적이 반등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로봇 등 신사업을 통해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 중이나, 단기 기여는 제한적이며 향후 수주 확대와 친환경 건축 수요에 따라 실적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 최근 변동사항

동사는 기존 실내건축 중심 사업구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사업 다각화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한 구조 변화가 최근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26년 1월 공시에 따르면 동사는 금영이엔씨의 덕트 제조사업 부문을 약 8억원에 양수하였다. 해당 사업은 환기설비 및 덕트 제조와 관련된 사업으로, 동사의 기존 실내건축 및 건축설비 사업과 연계 가능한 영역이다.

이번 영업양수는 단순한 외형 확장이 아니라 건축 내부 설비 영역까지 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의미를 가지며, 기존 차양시스템·이중바닥재 중심에서 공조·환기 관련 설비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사업 포트폴리오가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양수 대상 사업부의 2024년 매출이 약 48.8억 원 수준으로, 동사의 동기간 매출 대비 약 19.3%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도 실적 보완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로봇사업 계열사 휴먼인모션로보틱스가 개발한 엑소모션-R은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의 승인을 획득해 제품 출하와 판매가 진행 중이며, 미국 FDA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로부터 2026년 하반기 중 엑소모션-R의 판매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 향후 전망

동사의 향후 실적은 단기적으로 기존 실내건축 사업의 수주 회복과 신규 사업 확대 효과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6년에는 외부차양, 도배 등을 중심으로 매출이 일정 수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덕트 제조사업 편입에 따른 추가 매출 기여가 반영되면서 전년 대비 실적 반등이 기대된다.

중기적으로는 이번 설비사업 인수를 통해 공조·환기까지 포함하는 통합 건축 솔루션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주 경쟁력 강화 및 패키지 수주 확대가 기대된다. 이는 기존 단품 중심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복합 공종 수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수익성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산업 환경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요인이 존재한다. 친환경·에너지 절감 건축에 대한 정책 및 ESG 수요 확대는 동사의 차양시스템, 복사냉난방, 공조설비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중장기적인 시장 성장 기반을 제공한다. 동시에 로봇 산업 역시 글로벌 투자 확대와 함께 성장하고 있으며, 제조 및 헬스케어 분야에서 로봇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프로젝트 수주 의존도가 높은 구조로 인해 실적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로봇 및 바이오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로 실질적인 매출 기여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 건설·설비 사업의 수주 기반 확대와 함께 신사업의 단계적 상용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베노티엔알(206400)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	-	-	-
해당 내용 없음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자료: 네이버증권(2026.04.16)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베노티엔알	X	X	X